

상품으로 전락된 여성의 자유와 평등

94.12.9

강성원 / 미술평론가

8. 90년대 이전에 나온 여성관계 대중오락물이나 문학작품들의 주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. 첫째 여성의 순정이 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비극적 경험인 그 하나요, 둘째 <자유부인>에서 보듯 여성의 새로운 성윤리를 다루는 내용들이다. 셋째 사랑과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갈등이다. 이 경우 계층갈등묘사가 주요 문제의식이 아니라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사랑과 결혼의 비극적 현실에 초점

이 두어진다.

한국의 근대사회 전개이래 문화영역에서의 여성 이미지는 이 세가지 주제, 즉 결혼의 조건과 자유연애, 그리고 성적 자유의 문제로만 얽히게 되면서 현대 사회속의 한국여성 이미지는 평등과 자유의 문제를(현대성의 이념이 평등과 자유의 추구에 있었으므로) 결혼과 성의 문제 사이-스캔дали즘과 에로티시즘 사이-그 어느 자리에서 찾게 되고, 이런 이미지의 소통, 즉 유통을 꾀하기 시작했다.

70년대 들어 대중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세 문제의식은 거의 하나로 합쳐져 대중문화영역에서의 여성 이미지는 상품화된 결혼과 섹스의 문제로 귀결된다. 이수일과 심순애, 윤심덕의 <사의 찬미>에서 시작되어 <무정>, <흙>, <쫄레꽃>, <백치 아다다>를 거쳐 <맨발의 청춘>, <하숙생>의 시민사회에서 <별들의 고향>, <영자의 전성시대>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또 그리 먼길도 아니었다. 우리 여성들에게 관한 그간의 사회적 표현은 상품사회에서 여성들의 자유란 결국 '영자의 전성시대'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었음을 얘기한다.



영화포스터 <결혼조건>

여성의 자유와 평등이란 개념이 남녀관계에서 여성의 성적 도발성이나 분방함으로 얘기되고, 자유연애가 불륜의 스캔дали즘으로, 남녀 평등관계가 신분이 다른 남녀간에 느끼는 에로티시즘 정도로 해석되는 문화적 환경, 혹은 신분상승 욕구를 신데렐라 신드롬으로 통

속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평등개념 이해, 이런 이해 수준에서 지난 세월 우리의 여성미학은 탄생했다. 여성문제에 대한 이 같은 인식수준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예들이 7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온 씨받이를 주제로한 그런 류의 영화들이다.

이같은 문화환경이 만들어낸 배경,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.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 그 저류에서 감춰진 채로 혼탁하게 흐를 수 밖에 없었던 정서의 억눌림과 좌절,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불투명한 미래 등이 대중들의 감성의 주조로 쌓여가고, 이를 해소연할 수 있을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란 대중가요나 대중오락용 영화 등을 통한 위로였을 것이다. 이런 근대적 환경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분석이나 대안을 거론할 수 없었던 정치, 사회적 환경에서 질질 끄는 듯한 비탄조의 트로트나 저하늘에도 슬픔이, 혹은 미워도 다시 한번의 호느낌, 그리고 물레방아간에서의 어우동의 섹슈얼리즘은 그야말로 아무 생각없이 그 감각에 자신을 맡겨버릴 수 있게 하는 마약의 유혹 바로 그것이었다.



영화포스터 <돈과 시간을 달라>